



대동강부과 한강부의 탄생: 평양·서울의 수변주거단지와 욕망적 시선 형성에 관한 비교도시론적 해석*

황진태 동국대학교(서울) 북한학과 조교수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의 근거로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진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남북한 간의 새로운 유사성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통일의 공감대 형성 가능성을 탐색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수도인 평양과 서울에 대동강과 한강이라는 큰 하천이 관통하는 유사한 자연지리적 구조를 주목한다. 2010년대 중후반 한강변에 고급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한강부” 용어가 본격적으로 확산했다. 한강부는 한강이라는 서울의 대표 자연을 고층의 거주 공간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상위 계층에게 배타적 접근성이 있고, 한강부 용어의 사회적 확산은 한강부를 누리고 싶은 대중의 욕망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한강부는 자본주의 도시화의 산물이고, 사회주의 도시 평양에서 “대동강부”는 존재하지 않을까? 한강부 분석에 이어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대동강변에 건설된 미래과학자거리를 중심으로 대동강부의 맥아가 북한사회에서 형성될 수 있는지 가설을 제기하면서 북한문헌을 징후적으로 독해한다. 비교도시론의 관점에서 도시공간을 매개로 북한주민들이 한국사회와 유사한 인식과 욕망이 있을지를 탐색한 본 연구는 단순히 남북한 사회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 남북 교류협력이 재개되거나 통일된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인식하려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도 있다.

주제어 대동강부, 한강부, 평양, 서울, 비교도시론, 징후적 해석

I. 들어가며

분단된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하는 근거로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최우선으로 손꼽는다. 하지만 장기화된 분단상황에서 북한과의 접촉이 더욱 적어진 젊은 세대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앞 세대가 갖고 있는 통일의 공감대를 이어가는 건 쉽지 않다. 더구나 최근 북한 당국이 한국과의 특수관계를 상징하는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면서 남북한 사회에서 통일의 공감대는 더욱 취약해지

* 이 논문은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 실시한 2023 통일과 나눔 남북통합 정책연구 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본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귀중한 논평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 있다. 본 연구는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지만, 남북한 사회에서 새로운 유사성을 발견하는 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통일의 공감대 형성 가능성을 탐색한다.

지금까지 남북한이 통일로 향하는 경로가 끊임없이 흔들렸던 기저에는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체제를 채택하고, 체제경쟁을 해왔었기 때문이다. 지리적 스케일(scale)의 관점에서 체제경쟁을 보면, 각 체제는 각각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국가 스케일에서 전일적으로 작용하면서 다른 이념을 채택한 ‘저 곳’의 ‘그들’을 비판하는 동시에 ‘이곳’의 ‘우리’를 결집해 왔다. 이러한 국가 단위의 비교는 유사성보다 체제의 차이를 부각한다는 점에서 남북간 대화보다 갈등을 조장해 왔다.¹ 본 연구는 남북간 갈등과 대립을 확인해 온 국가 스케일보다 더 미시적 공간인 도시 스케일을 주목함으로써 체제/국가 간 갈등을 우회하고,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백일순, 2022). 연관하여 기존 국가 스케일에서의 북한연구가 국가 중심, 최고지도자 중심의 거시적 분석으로 진행되면서 그보다 미시적 층위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고유성, 역동성을 간과했다는 점도 도시 스케일을 주목한 이유이다(최완규, 2004; 고유환, 2015).

수도인 평양과 서울은 대동강과 한강이라는 큰 하천이 관통하는 유사한 자연지리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2010년대 중후반 한강 주변에 고급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한강뷰”라는 신조어가 확산했다. 한강뷰는 한강이라는 서울의 대표 자연을 고층의 거주공간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상위 계층에게 배타적 접근성이 있고, 한강뷰 용어의 사회적 확산은 한강뷰를 누리고 싶은 대중의 욕망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한강뷰는 자본주의 도시화의 산물이고, 사회주의 도시 평양에서 “대동강뷰”는 존재하지 않을까?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대동강변에 건설된 미래과학자거리를 중심으로 대동강뷰의 맥아가 북한 사회에서 형성될 수 있는지 가설을 제기하면서 북한문헌을 독해한다.

본 논문은 남북한 도시를 효과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이론자원으로 비교도시

¹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남북관계가 ‘이곳의 우리 vs. 저곳의 그들’의 대립구도로 고착되는 것을 깨려는 공론화를 시도한 성과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백낙청, 2021; 김학노, 2023 등), 현재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과 한국사회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로 대립구도는 더욱 견고해지는 실정이다.

론(comparative urbanism)(Robinson, 2006; McFarlane, 2010)을 차용한다. 기존 남북한 비교연구는 남북한의 유사성보다는 체제경쟁의 맥락에서 차이를 부각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이념적으로 경직된 인식이 실제 존재하는 남북한 도시들의 유사성을 파악하는 데 맹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교도시론은 국제학계의 지배적인 도시이론들이 서구 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몇몇 도시들(가령, 세계도시인 뉴욕, 런던, 메가시티인 뉴델리 등)을 중심으로 연구된 결과에 토대함에도 불구하고, 즉, 몇몇 도시들에만 설명이 가능한 이론, 개념을 나머지 다른 도시들에 적용함으로써 각 도시가 갖는 고유한 다면성, 복합성을 놓치는 상황을 비판한다(Robinson, 2006; McFarlane, 2010).

이러한 비교도시론적 성찰은 기존 북한도시연구가 체제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사회주의 도시들과의 비교에만 국한하는 것을 의문시하고,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도시들과의 유연한 비교를 지향한다(황진태, 2022). 이처럼 다소 도발적일 수 있는 비교도시론은 본문에서 확인하듯이 자본주의 도시화의 산물로 간주되는 한강류와 유사한 사회적 인식의 형성이 북한에서도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가능케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방법론은 문헌분석을 통한 징후적 독해이다. 북한연구는 현장답사, 인터뷰, 문헌 접근의 제약이 있는 조건(황진태, 2019)에서 북한주민들의 내면을 파악하는 것의 어려움이 상존한다. 북한문헌을 입수하더라도 북한 당국의 검열과 통제를 거쳤다는 점에서 북한주민들의 목소리와 욕망을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북한문학을 연구하는 이지순(2024)에 따르면, 선전선동의 관점이 북한문헌을 장악하지만, 그 안에서 북한주민들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북한문헌에 대한 내재적 읽기와 북한체제에 대한 외재적 읽기를 교차하는 징후적 독해를 제안한다. 이지순의 독해방식과 유사하게 황진태(2023: 104-112)는 『로동신문』에서 “도시 부럽지 않은”이라는 표현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 증가한 양상을 두고서 이 표현이 북한주민들의 도시화에 대한 욕망이 투영되었고, 동시에 북한 당국이 그러한 욕망의 표현을 허용하는 섬세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대동강류가 북한사회에 뿌리내렸는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본 논문의 분석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추정들이 곳곳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비교대상인 한국의 한강류 형성을 살

핍으로써 유사한 양상이 북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이하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기존 북한도시 연구에서 확인되는 이념적 경직성을 보다 유연화하기 위하여 1960년대 제기된 수렴이론과 2010년대부터 활발히 연구되어 온 비교도시론을 검토하여 이 논의들이 남북한 도시 비교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III장은 한강과 대동강이 흐르는 수변공간에 고층 주거단지 건설을 계기로 한강부와 대동강부가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 비교한다. IV장은 연구내용을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정리한다.

II. 비교도시론이 남북한 도시 비교에 주는 함의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의 비교연구를 막는 가장 큰 요인은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체제를 채택한 것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 간 대립이 고조되었던 냉전 시기에 남북한 당국은 상대방보다 자신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선전을 하면서 두 체제 간 차이를 강조하다 보니 체제 간 유사성에 관한 관심은 적을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낮은 발전수준과 한국의 고도성장의 결과로 인해 체제경쟁에서 북한은 패배했다. 특히, 2024년 초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선언은 한국문화가 북한으로 침투하여 북한의 정권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보고, 남북한 체제경쟁의 구도(즉, 북한을 한국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환으로 서로 남을 의미하는 두 국가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중구, 2024: 43). 적대적 두 국가론을 따라서 북한 당국은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관영매체(『로동신문』, 조선중앙TV 등)에서 한국을 비교 대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와 비교하면서 북한 체제의 우수성을 선전, 선동하고 있다. 한국은 진보와 보수의 정권별 차이는 있지만, 체제 간 차이를 부각하고 한국 정부가 채택한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체제경쟁의 구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한동호 외, 2023).

이처럼 한반도에서 지속되어 온 체제경쟁의 역사를 상기하면 상호 이질적, 배타적 속성만이 있을 뿐 유사성을 탐색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냉전이 한창인 1960년대부터 미국 학계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가 상호 배타

적이지 않고, 각 체제의 한계를 상호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수렴이론(convergence theory)이 제기되었다(Meyer, 1970). 수렴이론이 두 체제의 수렴이 가능하다고 본 공통 분모는 산업화, 근대화이다. 소련이 지향하는 공산주의의 미래상은 풍요롭고, 탈정치화되고, 계급과 갈등이 없는 아메리칸드림(American dream)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더불어 문화적 유사성(혹은 기능적 유사성)의 측면에서 유사한 청소년 단체[소련의 콤포몰(Komsomol)과 미국의 그리스 문자 클럽(Greek-letter fraternities)]가 존재하고, 심리적 수렴의 측면에서는 두 체제가 중시하는 리더의 상(像)(출세주의, 순응주의, 협동능력 중시 등)이 비슷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유사성으로는 두 체제에서 소외와 실패에 대한 심리적 적응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동일한 “도시문제”(청소년 범죄, 알코올 중독, 세대 갈등, 대기 및 수질 오염 등)가 발생한다는 것도 수렴의 측면으로 접근했다(Meyer, 1970: 316-318). 궁극적으로 수렴이론은 자본주의 체제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국가와 제도의 역할을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참고할 수 있으며, 관료 중심의 경직된 사회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향하는 경쟁방식의 도입을 통해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960년대에 수렴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소련을 바라보는 서구 연구자들의 시선이 소련의 고유성(uniqueness)에 경도되면서 소련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성찰이 주요했다. 가령, 냉전 시기 미국의 대외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던 조지 케넌(George Kennan)은 소련에는 사회구조가 없고 독재자에 의하여 원자화된 사회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X, 1947: 569; Meyer, 1970: 315 재인용).

수렴이론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은 북한의 독재체제에 몰입했던 국내 북한학계가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주민의 일상생활로 시선을 확대한 양상과 유사하다. 즉, 그동안 북한체제에 내포된 비사회주의적 특성(대표적으로 수령제)에 의해 형성된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 과도하게 몰입하다 보니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비교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다(박순성·홍민, 2010). 최근 들어 북한학계는 체제의 특수성보다 ‘부문의 특수성’을 세밀하게 포착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노현종, 2022). 추상적인 층위에서 내려와 구체적으로 특정 부문(예컨대, 기업구조, 농업정책 등)을 선정해 북한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비교연구를 역설하는 것은 앞으로 북한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 간의 활발한 비교연구가

제기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노현중(2024)은 수렴이론을 남북한 연구에 적용한 몇 안 되는 선행연구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분단 이후, 수해(水害)의 공간이었던 한강과 대동강을 남북한 당국이 정비한 이후에는 공통적으로 여가활동(달리기, 롤러스케이트, 유람선 등)이 등장한 양상이 자본주의적 근대성과 사회주의적 근대성이 수렴하는 면모로 주목한다. 또한 두 체제 모두 근대성이 야기한 문제점도 발생했다면서 강변의 여가문화를 일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두 강에 인접한 거주자(즉, 강변 거주지를 구매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라는 점에서 계층적 격차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도 노현중의 사례연구처럼 한강과 대동강의 도시문화를 주목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문제의식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현중이 밝혔듯이, “수렴이론은 지나치게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과 논의를 진행했다는 한계가 있다”(노현중, 2024: 41)는 점에서 국가 단위의 분석에 최적화된 수렴이론은 도시라는 국가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공간을 분석하는 데 전문화된 도시이론과의 결합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따라서 남북한 도시 비교의 필요성을 자극할 접근으로 본 연구는 비교도시론을 살핀다.

비교도시론은 포스트식민주의 성향의 지리학자 제니퍼 로빈슨(Jennifer Robinson)을 중심으로 제안된 개념으로 서구학계가 소수의 특정 도시들(가령, 1세대를 대표하는 뉴욕, 도쿄, 파리 혹은 3세대를 대표하는 뉴델리, 케이프타운 등)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안한 이론, 개념(“세계도시”, “메가시티” 등)들을 세계의 나머지 도시들에 일괄 적용하면서 “보통의 도시들(ordinary cities)”로서 각 도시가 갖는 고유한 다면성, 복합성을 놓치는 연구 풍토를 비판하고자 제기되었다(Robinson, 2006; McFarlane, 2010; 황진태, 2022: 4).

비교도시론은 동부·중부유럽의 포스트사회주의 도시 연구자들의 주목도 받았다. 주목을 받은 핵심 이유는 기존 포스트사회주의 도시연구가 ‘정상 vs. 비정상’, ‘근대 vs. 전근대’, ‘보편 vs. 특수’라는 서구 중심적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계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교도시론은 사회주의 도시로부터 자본주의 도시로의 이행 과정 중간 단계에 포스트사회주의 도시를 위치시키고, 이러한 포스트사회주의 도시들은 자본주의 도시에 비해 비정상적, 전근대적, 곧 사라질 것으로 간주하는 인식(즉, 사회주의 도시 → 포스트사회주

의 도시(이행 단계) → 자본주의 도시(최종 단계))이 만연했음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Ferenčuhová and Gentile, 2016).

대안적으로 포스트사회주의 도시 연구자들은 포스트사회주의 도시 연구의 대상지역을 전형적 연구지역인 동부·중부유럽 및 구(舊)소비에트 연방에만 국한하지 않고, 자본주의 도시를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순차적 시간관념에 따라 포스트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당연하게 대체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논리에 의하여 자본주의로 환원되지 않는 여러 전환이 포스트사회주의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탈영역적 접근을 지향한다 (Tuvikene, 2016).

학계에서 북한도시의 주요 비교대상은 북한과 유사한 사회주의 또는 포스트사회주의 체제의 도시들이지만(황진태, 2022: 25-26), 드물게 서울과 평양을 비교한 선행연구도 있다. 해당 연구들은 체제의 차이를 주요 변수로 두고서 경관의 차이(상가경관, 주거지경관, 가로경관 등)(이정재, 1993), 도심공간구조의 차이(김영재 외, 2001), 도로망 분석을 통한 도시 공간구조의 차이(김민아 외, 2012; 이수현·변기동, 2022) 등을 밝히려 했다. 선행연구들은 이념의 경계를 넘어서 남북한 도시 비교의 필요성을 환기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당대(1990~2000년대)의 시대적 제약(특히, 북한자료 접근의 어려움) 때문인지 통치 이념이 도시공간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공식을 세우고, 그 공식의 답으로서 두 도시의 차이를 재확인하는 단조로운 분석에 머물렀다.

하지만 오늘날 북한의 도시공간은 이념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탈영역화(시장화, 세계화, 국경을 넘어서는 지식이전(knowledge transfer) 등)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가령, 2013년에 발표된 원산의 갈마국제공항 리모델링안은 북한이 홍콩에서 활동하는 건축설계회사에 의뢰하여 세련되고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였다(Archdaily 홈페이지 2025. 3. 6. 접속).² 2018년 6월 북미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정은은 심야에 싱가포르의 도시경관을 바라보며 그곳을 북한이 추

² 실제 완공된 공항의 외관은 원안에 비하면 ‘검소’하게 지어졌는데, 예산제약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문헌에 밝힌 Archdaily 홈페이지를 통해 리모델링안을 볼 수 있고, 완공된 공항의 외관은 나무위키 관련 글에 수록되어 있다(나무위키 홈페이지 2025. 3. 6. 접속).

구할 “발전상”(로동신문 2018/06/12)으로 규정했고, 『로동신문』 1면에는 싱가포르를 둘러보는 김정은을 촬영한 다수의 사진이 게재되었다(황진태, 2022: 29-31). 수렴 이론의 논조처럼 김정은과 싱가포르 야경의 병치(並置)는 체제의 차이가 근대화와 발전의 소실점으로 수렴되는 듯한 형세이다. 끝으로 2021년에 시작된 평양 5만 세대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평양에 건설된 초고층 대규모 살림집들의 다채로운 디자인과 형태를 주목할 수 있다. 이 계획은 1982년 김정일이 창립하여 소위 ‘주체건축’을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북한의 주요 건축물 설계를 담당해 온 백두산건축연구원이 맡았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지어진 평양의 초고층 살림집들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비판한 대상을 닮았다는 점은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연구진들이 전 세계로부터 건축 관련 영감과 지식을 얻고, 베끼기와 변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김정일이 주창한 “우리 식의 주체건축”(김정일, 1997)은 더 이상 실제보다는 이념과 수사(修辭)의 영역에 머문다고 볼 수 있다.³

여기서 수렴이론과 비교도시론 간의 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수렴이론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간의 차이와 대립보다 유사성을 포착하려 했다는 점에서 각 체제는 다양한 경로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포스트사회주의 도시 연구에서 가정하는 ‘비정상적’ 사회주의 도시들이 ‘정상적’ 자본주의 도시로 이행될 것이라는 단선적 경로를 비판하는 비교도시론의 문제의식과 겹을 같이한다. 특히, 수렴이론에서 상이한 체제 간의 비교연구 주제로 도시문제를 언급한 점(Meyer, 1970: 316-318)은 다른 체제인 남북한 도시들에 대한 비교도시론 연구가 가능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두 논의 간의 친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³ 백두산건축연구원이 발간하는 잡지인 『조선건축』에서는 “지금 세계의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발전된》 나라들의 번쩍거리는 마천루들과 거리들에 현혹되어 그것을 하나의 추세로 보면서 그대로 본따거나 그 나라의 《이름있는》 건축가들에게 자기 나라에 지을 건축물들을 설계하고 건설하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거리와 도시들에서 민족성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이것은 남의 것을 기계적으로 본따려고 하거나 자기의 것은 나쁘고 남의 것만 좋다고 하는 교조주의적이며 민족허무주의적인 현상,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 책동에 편승하여 《국제건축》, 《세계적인 건축》을 제창하는 반동적인 부르조아건축가들의 주장에 발을 맞추는 현상의 표현으로서 자기의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황재평, 2009: 4)면서 ‘민족성을 잃은’ 마천루 일변의 건축을 비판한 바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건설된 초고층 살림집들은 자신들이 비판한 반동적 부르주아 건축으로부터 얼마나 주체적인지에 대해서는 건축학 전공 연구자들의 세밀한 비평이 필요하다.

있다.

하지만 수렴이론에서 논하는 수렴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흡수의 유사어로 인식할 수 있다. 가령, 북한의 학자 김주철은 수렴이론을 “인민대중의 계급적 각성과 혁명의식을 쪼먹는 해독적 기능”(김주철, 2006: 48)을 한다고 평했다. 김주철의 글을 소개한 노현중은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수렴이론에 대한 논리적 한계점들을 학술적으로 논하지 못하고, 반동사상철학이론으로 신속히 단정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노현중, 2024: 42). 반면에 필자는 김주철의 글을 통해서 수렴이론을 반동사상으로 간주할 정도로 약해진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주목한다. 최근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보수정권뿐만 아니라 진보정권까지 흡수통일을 지향한다고 비판한 사실은 북한의 체제적 취약성이 더욱 심화하였음을 방증한다. 1970년대 수렴이론이 상정한 사회주의와 비교하여 2025년 시점에서 3대 독재가 이어지는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적 보편성보다 북한 체제의 특수성이 더욱 짙어진 것이다.

적대적 두 국가론이 등장하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종래의 체제경쟁 또는 남북교류협력의 언어인 하나의 민족이라는 공통분모를 내세우는 것은 사실상 무력화(無力化)되었다. 수렴이론을 차용한 노현중은 “수렴의 가능성을 강박적으로 모색”(노현중, 2024: 43)하는 것을 경계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도 같은 민족이기에 남북한은 통일될 것이라는 단일 경로를 가정하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한계가 있음을 의식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교도시론을 차용한 본 연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로 환원되지 않는 남북한 도시의 유사성을 찾는 것을 분석의 우선순위로 둔다. 그간 체제 기반의 거시적 민족 담론이 남북한 도시공간에 존재할 ‘미시적 유사성들’을 주목하지 못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효과적인 비교도시론 연구를 위해서는 국내 북한학 연구자들⁴은 그간 남한을 기준으로 연구대상인 북한을 바라보던 시선을 자신이 살고 있는 남한으로도 향할 필요가 있다. 북한학 연구자들은 국가 단위의 체제 비교에 익숙하면서 남한은 북한 연구를 위한 기준이었지 성찰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었다. 이

⁴ 전공명으로서 북한학 연구자만을 특정한 것은 아니며 북한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연구자들을 포함한다.

처럼 남한은 주체, 북한은 객체로 간주하는 인식을 남한중심주의(또는 방법론적 남한주의)로 칭할 수 있다(정성장, 2007; 황진태, 2019: 130). 앞으로 관련 연구자들은 한국도시에 대한 성찰의 깊이에 따라서 북한도시의 어떤 측면을 비교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의 폭이 결정될 것이다. 가령, 자본주의 도시 서울의 부유한 지역인 강남의 공간적 특성이 사회주의 도시 평양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답하고자 ‘평양의 강남’을 찾으려 한 연구(황진태, 2020)는 서울의 공간적 특성에 대한 연구자의 선행 이해를 바탕으로 평양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했다. 즉, 북한도시연구에서 비교도시론이 갖는 의의는 자료제약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방법론도 있겠지만, 필자는 기존에 당연하게 여겨졌고, 익숙한 사실들을 새로운 비교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는 인식론적 새로움에 방점을 둔다.

이상의 비교도시론의 통찰을 바탕으로 다음 III장에서는 평양과 서울이 갖는 도시형태(urban form)의 유사성(평양, 서울을 관통하는 대형 하천과 하천을 따라 지어진 초고층 아파트 단지)이 남북한 사람들의 인식(한강뷰와 대동강뷰의 형성)에 유사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평양과 서울을 비교한다.

III. 평양·서울의 수변주거단지 건설과 욕망적 시선의 형성

1. 한강뷰의 탄생

한강뷰의 사전적 의미는 한강이 보이는 시야(view)이다. 이 사전적 의미에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게 된 사회공간적 맥락이 포함되어 있진 않다. 아직 학계에서도 한강뷰에 학술적 관심을 본격적으로 두지 않고 있다.⁵ 국내 뉴스 빅데이터 분석 포털인 빅카인즈(bigkinds.or.kr)에서 한강뷰를 검색한 결과, 2010년부터

⁵ 한강뷰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한강뷰가 있는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 선호에 관한 관광학 연구 정도가 있다(김미영·김지희, 2018; 이선미 외, 2016). 아직 한강뷰의 형성과정에 대한 인문사회과학 연구는 부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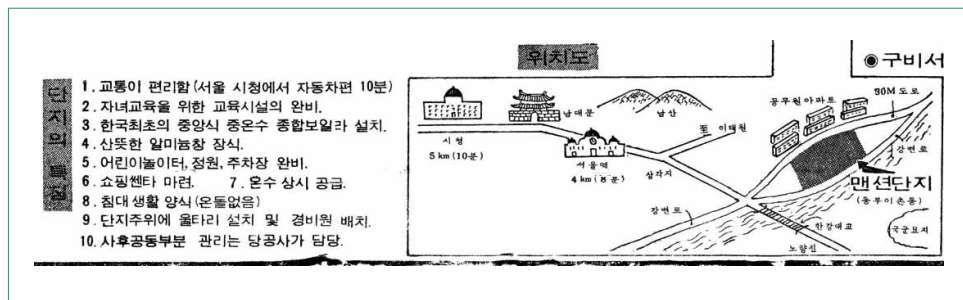
2016년까지 한강류가 포함된 기사는 매년 30건을 넘지 못하다가 2018년(86건)부터 급증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200여 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400여 건으로 증가했다.⁶ 이와 같은 한강류 관련 기사수의 증가 시점은 2010년대 중후반부터 한강을 따라 지어진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 시기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연관하여 관련 신축 아파트들에 대한 광고 및 홍보 영상에서 한강류는 “소수에게만 허락된 한강의 맨 앞자리”, “한강을 독점적으로 소유한 공간”, “권력자의 시선”과 같은 언술이 확인된다.⁷ 정리하면, 본 논문에서 ‘한강류’는 서울을 대표하는 자연경관인 한강 일대에 한국의 지배적 주거 양식인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러한 높은 곳에서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접근성이 경제적 상위 계층에게 국한되는 과정을 수반한다.⁸ 이는 높이에 기반한 조망권의 상품화 과정과 연결되며, 실제 한강류를 누릴 수 있는 계층은 제한적이지만, 한강류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확산된 저류에는 이를 향유하고자 하는 대중의 욕망 또한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강류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것은 최근이지만 이 단어가 출현하기 이전에 거주공간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특권화된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근 한강 일대의 신축 아파트의 재건축 이전에 한강 수변을 따라 건설된 아파트에서도 유사한 시선은 존재했다. 이하의 분석은 한강 일대에 아파트가 건설된 196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한강류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아파트 분양광고, 부동산 시세 기사 등을 통해 추적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한강류를 재현하는 아파트 분양 신문광고를 주목한다. 분양광고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려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강류의 사회적 구

⁶ “한강류” 용어는 2000년 이전까지는 한국사회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필자가 1920년부터 1999년까지 조선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등 국내 주요 신문의 기사들을 제공하는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에 한강류를 검색하면 한강류 용어가 포함된 기사를 단 1건도 확인하지 못했다. 물론 본 연구가 살펴듯이, 한강류 용어는 없었지만, 한강을 조망하는 것에 대한 욕망적 시선은 1970년대부터 확인된다. 빅인즈의 검색 내용을 인용한 것은 한강류 용어가 적어도 2010년대부터 한국사회에 급속도로 확산했음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⁷ 공인중개사가 집을 소개하는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PerTucgxBi4>), 건설회사의 홍보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NPhPF5u49R8>)을 참조함.

⁸ 높이의 측면에 대한 의견을 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출처: 동아일보(1969/10/06), 1면.

그림 1 1969년 한강맨션아파트 분양광고의 일부분

성과정에서 건설회사가 핵심 행위자임을 시사한다. 예컨대, 노재현·김옥경(2007)은 각 건설사들의 신문광고를 검토하면서 이들 분양광고에 아파트의 조망지향성(거주공간에서 외부 자연에 대한 전망)에 대한 소개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포착했다. 또한 1990년대부터 국내 도시연구에서 거주의 조망지향성과 아파트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정홍주, 1995; 오규식·이왕기, 1997)은 조망지향성이 좋을수록 아파트 가격이 높아진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분양광고를 통하여 그러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하였음을 의미한다.

한강 수변에 대규모 단지로 건설된 첫 번째 아파트는 1970년 준공된 이촌동 한강맨션아파트를 들 수 있다. 당시 한강맨션아파트를 건설한 대한주택공사의 장동은 총재가 일본 출장에서 보았던 고급 아파트 광고에 맨션 단어가 쓰인 것을 보고서 국내 최초의 중산층 아파트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명칭에 맨션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매일경제 2009/06/16; 동아일보 1970/09/09). 그러나 당시 한강맨션 아파트 분양광고(그림 1)는 서울 시내와의 접근성, 교육 및 주변 편의시설들을 강점으로 밝혔지만, 한강에 인접했다는 사실은 강점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이 광고를 포함해 1969년부터 1972년까지 확인된 한강 일대에 건설된 아파트에 대한 신문기사들에서는 수변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장점으로 보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생활의 불편함을 강조한 기사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공군은 한강백사장에서 에어쇼가 벌어지는 2일 오후 2시부터 한강 주변의 아파트

와 흑석동 일대 민가의 창문이 비행기 폭음으로 파손될지도 모르니 모든 창문을 열어놓도록 요망했다”(조선일보 1969/10/01).

이곳에 아파트(인용자: 원문 그대로 옮김)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난 63년부터 14m 높이의 독을 쌓은 20만 평에 백사장의 모래가 퍼올려져야 했다. 이 광경을 보고 비웃는 사람도 많았다. 이곳에 큰 건물을 짓는다는 건 사상누각이라고[...](경향신문 1970/10/02)

그러나 한강맨션에도 불편한 점은 많다. 아파트가 겹겹이 있어 햇빛이 잘 들어 오지 않으며 강변에 접한 곳에선 모래가 날라와 세탁물을 널 수가 없고 창문을 열어 놀 수도 없었다. 초상이 났을 때는 이웃이 시끄러워 마음대로 올 수도 없고 상여를 내기도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단독주택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다. [...] 생활혁명을 안겨다 준 맨션생활이 훨씬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다(조선일보 1970/12/11).

A급 시설을 갖춘 한강맨션이나 여의도아파트는 겨울철 강바람이 세어 모래가 날아들 때가 있다. 시민아파트를 제외한 서울의 아파트는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도로를 따라 한강변에 몰려있다. 때문에 길가 입주자들은 자동차의 소음과 헤드라이트 반사때문에 처음엔 밤잠을 설칠 때가 있었다고 한다(조선일보 1972/10/26).

위 기사들은 한강 수변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갖가지 불편사항들(자동차 소음, 적은 일조량, 가려진 조망, 전통장례의 어려움)을 열거하고 있다. 『경향신문』 기사(1970/10/02)는 생활의 불편사항을 열거한 수준을 넘어서 모래 위에 지어 튼튼하지 못한 건축물을 가리키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는 고사성어를 한강맨션아파트에 빗대었다는 점에서 당시 건물안전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강 수변에 건설된 초창기 아파트 기사들을 통해 한강을 바라보는 특권화된 시선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고, 한강변 거주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음을 확인했다. 즉, 한강 수변주거단지를 긍정 일색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개발 초창기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사회적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시각이 담긴 위 기사들에는 근대적 거주공간으로서 아파트에서의 삶에 대한 거주민의 긍정적 인식도 일부 확인된다. “단독주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생활혁명을 안겨다 준 맨션생활”을 긍정하는 거주민의 발언(조선일보 1970/12/11), “A급 시설을 갖춘” 아파트라는 표현(조선일보 1972/10/26), 일

출처: 동아일보(1976/08/19), 1면.

그림 2 1976년 아파트 분양광고의 일부분

江邊 最適의 住居環境

漢江을 굽어보는 田園的 居室

도시인의 소망——복잡한 도심권을 벗어나서 퇴색되지 않은 자연과 귀중한 시간을 보내는 전원적 생활은 도시인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루 하루를 분주히 보내야 하는 도시인의 생활은 도심권을 벗어나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중심권 5km내에 위치한 원효로 한강변 산호아파트는 주말을 갈구하는 교외의 별장처럼 도시인의 절실한 요구를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시킨 전원적 생활공간입니다.



원효로 산호아파트

반 가정의 창문이 깨질 것을 우려해 정부가 사전 안내를 하고 신문에서도 이를 보도한 것(조선일보 1969/10/01)을 접한 일반 시민들은 한강 수변 아파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호기심도 싹틔울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호기심은 뒤에서 확인하듯이 한강부를 탄생시키는 거름이 된다.

1970년대 중반부터 주거공간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거주민의 시선이 본격 등장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러한 거주자의 시선은 거주자가 자발적으로 드러내었기보다는 부동산 시장과 건설회사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림 2는 거주자의 시선을 아파트 광고에 담고 있다. 광고 속 한강 건너편 여의도 아파트 단지들의 풍경이 삭제되었다면 독자들은 광고문구처럼 광고모델이 “교외의 별장”에서 독서하는 것으로 착각했을 수 있다. 서울의 중심에서 “퇴색되지 않은 자연”, “전원적 생활”을 누린다는 광고문구는 자연환경에 대한 배타적 접근권이 거주민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광고와 함께 1970년대 중후반 가열된 부동산 시장을 보도하는 기사들에서 확인되는 “한강을 따라 전망이 좋다는 지리적 여건”(매일경제 1976/12/22), “창밖에 보이는 한강의 모습은 참으로 한 폭의 그림”(매일경제 1977/10/01), “주변환경이 조용하고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경향신문 1978/07/10) 등의 서술에서 보듯이, 같은 아파트이더라도 한강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부동산 가격과 연동되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부동산 가격과 한강류의 상관관계는 보다 전면에 드러난다.⁹ 신문기사에서 동별, 평수에 따라 아파트 가격을 세부적으로 밝힌 아파트 시세표가 보편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했고(매일경제 1986/09/15), 아래 인용문에서처럼 시세표에서 높은 가격을 차지하는 곳이 한강류가 있는 집임을 명시하는 기사가 정형화되기 시작했다.

또 강변경치가 시원히 창밖으로 보이는 10,11,12,13동은 값이 한강개발전보다 10% 정도 뛰어 1억~1억 3천만원 가던 6평형이 1억1천만~1억5천만원선으로 오르는 기현상도 보이고 있다(경향신문 1986/06/21, 밑줄은 인용자주).

특히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신동아 46평 69평, 렉스맨션, 반도, 한강삼익, 장미, 한강맨션 등은 위치가 좋으면 평당 3백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매일경제 1987/08/17, 밑줄은 인용자주).

1980년대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이전까지 한강류는 부동산 시장과 건설회사에 의해 고안되었던 것과는 달리, 아래 인용된 기사에서처럼 거주민이나 일반 대중의 한강류에 대한 직접적 인식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를 한 첫 날밤, 어둠이 솔솔내리는 아파트뒤 창가에 서서 생각에 젖어있다가 그만 나는 “아아!”하고 신음과도 같은 감탄을 터뜨리고 말았다. 조그만 창으로 내다보이는 밤의 한강이 너무 아름답게 흐르고 있었다(시인 문정희, 동아일보 1985/08/05, 밑줄은 인용자주).

동부이촌동 한강맨션의 한 가정에서는 강이 내려다보이는 동쪽 맨 구석집인점을

⁹ 앞서 소개한 조망지향성과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지만(정홍주, 1995; 오규식·이왕기, 1997), 인용한 신문기사들을 통해 이미 1980년대부터 그러한 상관관계가 사회적으로 확산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용, 아예 배란다를 전면과 바깥쪽 옆면까지 터서 페어글라스로 막아놓은채 화분 등을 장식, 색다른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매일경제 1985/07/10, 밑줄은 인용자주).

[영화촬영장소: 인용자] 아파트는 압구정동과 동부이촌동이 단골. ... 한강과 동호대교가 내려다보이는 풍경을 담기 위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O동 105호는 적도의 꽃, 고래사냥, 달빛사냥꾼 등의 무대가 됐다(경향신문 1986/09/06, 밑줄은 인용자주).

첫 번째 인용 기사는 한 시인이 「한강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에세이를 게재한 것이다. ‘조그만 창’의 실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 안 되지만, 큼직한 창이 아닌 조그만 창에서 바라보았는데도 ‘신음과도 같은 감탄’이 나오게 만드는 밤의 한강에 대해 독자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두 번째 기사는 한강맨션 아파트의 한 거주민이 한강이 잘 보이도록 공사한 것을 소개했다. 언론이 일반인 가정의 실내 공사를 보도했다는 사실은 당시 한강 일대 건설된 아파트의 거주민들이 한강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사한 공사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였음을 암시한다. 세 번째 기사는 한강뷰를 직접 누리진 못하지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일반 대중과 한강뷰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영화제작사의 장소 선정기준이 한강뷰를 포함한 중상류층 생활양식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한강뷰가 특정계층의 거주공간과 연관되었다는 사실이 영화에 빈번히 나올 정도로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거주민들의 한강뷰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대중매체를 통해 한강뷰에 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1970년대 중반부터 한강뷰 논의를 주도해 온 부동산 시장과 건설회사의 역할이 주요했다.

1990년대 들어서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한강뷰의 주목할 만한 특성은 한강뷰를 누리는 거주민과 그러지 못하는 일반 대중들의 계급·계층적 차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구별짓기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1980년대 한강뷰 담론에서 한강뷰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경제적 역량이 있다면 앞서 시인 문정희의 말처럼 ‘집을 팔고 [한강이 보이는: 역차]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한강뷰 담론은 그러한 시장의 합리적 작동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기보다는 일반



출처: 경향신문(1991/04/02), 17면. 원본사진은 천연색임.

그림 3 유엔빌리지를 소개하는 기사에 수록된 한강뷰 사진

대중과 구분되는 상위계급과 계층이 존재하며 이들이 거주하는 배타적 특성을 지닌 공간으로 한강 수변주거단지를 규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구별짓기는 건설회사의 광고가 주도했다. 광고에는 “한강특별시민” (조선일보 1996/09/17), “시대를 대표하는 오직 여덟 분, 시대를 대표하는 오직 여덟 채” (조선일보 1996/11/25)와 같은 문구들이 실렸다. 특히, 서울특별시로부터 차용했을 한강특별시민은 서울의 다른 지역과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광고와 함께 신문기사에서도 유사한 구별짓기가 확인된다. “전망 좋은 「로열층」 한강이 눈앞” (경향신문 1992/08/20)이라는 기사제목처럼 한강뷰를 볼 수 있는 거주민을 태어나면서부터 계급이 정해진 왕족, 귀족으로 칭하는가 하면,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한 아파트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는 사진이 실린 기사(그림 3)에서는 “한강이 눈앞에 내려다 보이는 [...] 이곳이 지금은 우리나라의 전·현직고관과 재벌그룹 회장들이 주로 살고 있” (경향신문 1991/04/02)다며 한강뷰에 한국사회의 권력구조를 투영했다. 유엔빌리지를 소개한 이 기사의 제목인 “한국의 베버리힐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부유한 지역의 지명을 따왔다는 점에서도 배타적인 공간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헌집줄게 새집다오”

압구정동 49평형 아파트 개조 40세 주부 김성혜 씨

리모델링이란

허름한 집을 헐지 않고 새롭게 고쳐 완전한 새 분위기의 집으로 주는 작업을 말한다. 리노베이션(이파고도며 우리말로는 『주택보수』를 뜻한다. 지난 9월9일 건설교통부의 파트구조변경 개선안 입안이 요강 무척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공간변화를 시도하는 신세대 주부들에게 적합한 인기를 얻고 있다.

집의 양부를 산뜻하게 꾸는 인테리어와는 다다. 아파트 배관 등



◇ 카페에 앉은듯

아파트 한쪽 방을 음악감상실로 개조.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부부가 차를 마시고 있다. <정원식기자>

출처: 조선일보(1997/04/05), 31면. 원본사진은 천연색임.

그림 4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부를 소개한 기사에 실린 한강뷰 사진

앞서 살펴본 건설회사 분양 광고와 신문 기사에서 드러난 구별짓기는, 한강뷰 아파트를 일반 대중이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자신의 노력이 아닌 운에 의하여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을 가리키는 졸부나 불공정 경제행위를 통해 부를 얻는 행태를 비판하는 천민자본주의와 같은 부정적 시선으로 고급 아파트 거주민들을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다(황석영, 2010; 백지연·김백영, 2010). 그러나 언론매체는 그러한 질타의 대상이 아닌 이곳의 거주를 긍정적인 것으로 틀 짓기를 시도한다. 가령, 1997년 4월 5일자 『조선일보』 기사는 오늘날 한국 도시화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층 아파트 중심의 도시건설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강남 안에서도 핵심지역인 압구정 현대아파트 거주민들이 “허름한 집을 헐지 않고 새롭게 고쳐”(조선일보 1997/04/05) 거주를 지속할 수 있게 한 리모델링을 모범사례로 보도했다. 기사제목인 “헌집줄게 새집다오”(그림 4)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헌집으로 칭한다는 점에서 어색

하게 느껴진다. 기사의 사진에서는 거주민인 부부의 세련된 복장, 고급스러운런 조명과 찻잔, 뽁뽁한 CD케이스와 넓은 창문에 보이는 한강의 야간 풍경이 빛 어넨 (기사에서 서술하듯) “카페에 앉은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기사는 거주민을 새집으로 이사하지 않더라도 리모델링으로 새집처럼 바꿀 수 있는 현명함과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갈 집도 이와 같은 공간으로 바뀌야 함을 고무시킨다.

2. 대동강류의 맹아

앞 절의 제목은 한강류를 탄생으로 규정했다면, 본 절의 제목에서 대동강류는 맹아로 표기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서울의 도시화 과정에서 한강류라는 특정 인식이 만들어진 것과 비교하여 대동강류는 아직 북한사회에서 이와 유사한 단어가 사회적으로 확산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맹아의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탈북민이 출연한 TV 예능프로그램에서는 평양의 한 카페에서 대동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장면을 “대동강류”라고 칭했지만, 정치 좋은 장소를 가리키는 정도로 언급되었다(티비조선 2021/01/24). 본 연구에서 대동강류는 한강류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유사하다. 즉, 대동강류는 대동강이라는 평양의 대표 자연경관을 아파트의 사적 거주공간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배타적 접근성이 있고, 이러한 배타성에 기초하여 대동강류를 볼 수 있는 특정 주민들의 과시적 욕망과 대동강류에 접근하지 못한 주민들의 대동강 주변 주거공간에 살고 싶은 욕망이 응집된 용어이다.¹⁰

¹⁰ 한강류와 달리 대동강류를 개념화하는 것은, 실제 평양의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욕망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2절 제목에 ‘맹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본문의 분석에서는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 주민들이 어떤 인식과 심리를 가졌을지를 함의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본문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보았을 것이다”, “부러움을 샀을 가능성이 있다”, “대동강 일대를 내려다보고 싶은 욕망이 자라날 수 있다” 등의 서술 구간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명확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학술적 글쓰기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의 한강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대동강류도 유사한 방식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이라는 방법을 통해 탐색하고자 했다. 사고실험은 실증적 자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특정 현상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법론으로 사용된다.

선대와 비교하여 김정은 집권 이후 도시경관 변화의 특성은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평양에 집중적으로 건설되고 있다는 점이다(홍순직, 2023).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후 대동강 수변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를 건설한 첫 사례는 평천 구역에 건설된 미래과학자거리이다.¹¹ 본 연구에서는 미래과학자거리를 중심으로 대동강류의 맥아를 추적한다.

앞 절에서 한강류의 사회적 구성과정은 민간 건설기업과 민간 언론사가 주요 역할을 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분양광고가 주요했다. 하지만 계획경제를 지향하고 주택의 민간거래를 법적으로 금하는 북한의 평양 시내에서 옥외광고판에 당의 선전문구 대신에 신축 아파트 조감도가 들어가거나 북한의 대표 신문이자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에 분양광고가 실리는 상황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로동신문』에는 아파트 광고 대신에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설 과정을 세세히 보도하면서 최고지도자와 조선노동당의 치적으로 선전하는 기사들이 수시로 실린다는 점에서 정권의 정치적 의도와 주택건설이 긴밀히 연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임수진, 2023; 황진태, 2023).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북한의 신흥 부유층인 돈주가 공동참여하고, 완공 이후 돈주들은 투자금과 함께 상당한 이익을 회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홍순직, 2023: 56-58), 이들의 존재는 북한 매체에서 언급되지 않고, 오로지 최고지도자와 당만이 노출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민간 건설회사들이 한강류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와 당이 국가의 이념, 정책부터 주민 일상생활의 규율까지 통제한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발행하고 북한 주민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로동신문』을 독해하여 대동강류의 사회적 형성과정의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12, 13}

¹¹ 평양의 중심부인 중구역에 만들어진 창전거리도 대동강과 인접해 있지만, 김정일 정권 시기에 준공(2011년 5월 22일)되어 김정은 집권 직후에 완공(2012년 6월 21일)되었다는 점에서 온전히 김정은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 김정은 본인이 “창전지구를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심혈을 기울이시었다”(로동신문 2012/06/03)면서 김정일의 성과로 말하였다.

¹² 『로동신문』을 독해하기 전에 북한 당국의 건설, 건축에 대한 나름의 공식 입장이라 볼 수 있는 『조선건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 잡지에서 초고층 아파트 거주자의 아파트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논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조선건축』으로부터 두 가지 유의미한 내용을

한강류의 사회적 구성은 건설회사뿐만 아니라 수변주거단지의 거주민·비거주민들의 인식도 담겼었다. 당기관지의 특성상 『로동신문』은 ‘우리 인민’이라는 집단적 주체로서 호명될 때 북한주민들의 목소리가 실리지만, 개별 주민이 갖는 개인의 욕망을 포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황진태(2023)는 『로동신문』으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욕망을 포착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김정은 집권 시기에 “도시 부럽지 않은” 표현의 증가 추이를 살피면서 려명거리 준공(2017년) 이후 그 표현이 급증했음을 포착했다. 한국사회에서 ‘부럽지 않다’는 보통 개인의 심리와 관련되지만, 북한에서 ‘부럽지

확인했다. 첫째, 거주자들의 시선에 대한 논의가 없지는 않다는 점이다. 즉, 아파트 외부가 아닌 내부의 거주공간에 대해서 “시각적 특성을 사람의 생리적 및 심리적 활동과 결부하여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박정남, 2011: 47)며 관련 논의(실내 진열품의 배치, 색채 등)가 꾸준히 있었다(박정남, 2011; 오수련, 2016; 김성재·리문철, 2011; 리창룡, 2016). 둘째, 외부에서 건물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91년 김정일이 저술한 『건축예술론』에서 가까운 거리, 중간 거리, 먼 거리에 따라 건축물 간의 조화를 강조한 것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김정일, 1997: 234). 김정일의 주장은 미래과학자거리에도 적용된다. 몇 가지를 인용하면, 건물 높이의 비율, 마감색의 차별화를 통해 미래과학자거리가 “각이한 모양새의 건물들로 이루어진 거리”(류승남·김혁, 2016: 33)가 되었다는 평, “북쪽 면의 건물들을 거리형성에 끌어 들이었고 남쪽 면에서는 중경으로 대동강의 풍경을, 원경으로 강 건너편의 수려한 풍경을 인입함으로써 립체감과 원근감으로 거리를 웅장하게 형성할 수 있”(김혁, 2016: 36)었다는 평, “력점적인 3개의 건축물들을 묶어 주택군을 형성하고 그 사이에 고층건축물을 배치하는 하나의 구성체계를 조형적으로 완성하여 통일성을 보장하였다”(김정관·정성일, 2018: 12)는 평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비록 『조선건축』에서 대동강류의 실마리는 찾지 못했지만, 위의 두 가지 측면(① 거주자의 내부공간에 대한 시선, ② 외부에서 건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앞으로 대동강류와 같은 시선에 대한 논의가 싹틀 수 있는 씨앗임을 확인할 수 있다. “풍경에 대한 시각특성”이라는 제목의 최근 글에서 저자는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누리려는 사람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풍경설계에서는 시각적인 분석과 풍경계획과의 호상관계를 분석하여야 한다”(박정남, 2019: 46)는 주장으로 글이 마무리되는데, 여기서 ‘사람의 본성적 요구’는 통치의 논리로 환원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로동신문』에 대한 독해를 통해 욕망적 시선이 깃든 대동강류의 맥아를 확인하고, 앞으로 그러한 맥아들의 노출이 북한 매체에서 더욱 빈번해진다면 미래의 『조선건축』에서는 대동강류에 대한 논의를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다.

¹³ 본 연구는 한강류와 대동강류를 구성한 구체적인 행위자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인식이 두 사회에 존재하는지를 살피는 데 있다. 그리하여 서론에서 밝혔듯이 핵심 방법론으로 징후적 독해를 택한 것이다. 한강류의 형성과정에서는 민간 건설회사와 언론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혔지만, 더 다양한 행위자들(건축설계사, 관련 정부기관 등)이 있을 것이다. 반면에 북한의 경우에는 선행연구(홍순직, 2023 등)를 참고하여 예상되는 행위자들을 언급했지만, 방법론적 제약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자들이 참여했는지를 규명하지는 못했다. 구체적인 행위자 규명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않다’는 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자본주의를 남으로 지칭하여 “남부럽지 않은” 표현으로 사용해왔다. 반면에 ‘도시 부럽지 않은’ 표현은 부러움의 대상인 도시를 호명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발전된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소도시, 촌락에 거주하는 개인들의 부러움을 드러내고 있다(황진태, 2023: 107).

창전거리(2012년)를 시작으로 미래과학자거리(2015년), 려명거리(2017년), 송신·송화지구(2022년), 보통강 강안 다락식 주택구(2022년), 화성지구 1~4단계(2025년 완료 예정) 등이 평양에 연이어 건설되고, 지방에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2025년 6월 개장 예정), 삼지연시(2019년)와 같은 대규모 도시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을 북한주민들은 『로동신문』, 조선중앙TV 등의 관영매체를 통해 김정은 집권 10여 년 동안 목격해 왔다. 북한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열악한 실태와 비교하면서 발전된 도시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형성될 수 있고, 이는 ‘도시 부럽지 않은’ 표현의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황진태, 2023: 109). 다만 황진태(2023: 107)도 지적했듯이, 이 표현의 증가가 온전히 북한주민의 욕망으로만 환원될 수는 없다. 북한 당국의 입장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자신들이 부러워하는 도시처럼 스스로 발전시키도록 요구하는 자력갱생의 논리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북한 당국의 통치 의도가 있지만, 『로동신문』을 통해 도시공간을 매개한 북한주민들의 욕망이 표출되었음을 확인한 것은 『로동신문』에서 대동강뷰와 관련한 북한주민들의 욕망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로동신문』에 게재된 고층 아파트에서 대동강을 내려다보는 김정은의 사진은 창전거리에 건설된 아파트를 방문한 2012년 5월에 촬영된 것이다(그림 5). 이 사진에서 김정은은 대동강을 배경으로 간부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담겨졌다. 김정은의 창전거리 방문을 보도한 『로동신문』에서 김정은은 살림집 내부를 꼼꼼히 살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대동강 관련 언급은 확인되지 않는다(로동신문 2012/05/31). 비록 사진에서 김정은은 대동강을 직접 바라보진 않았지만, 이 기사를 본 북한주민들은 사진 왼쪽에 펼쳐진 맑은 날의 대동강 풍경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낮선 구도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보았을 수 있다. 비록 그 아파트에 입주한 북한주민들이 김정은의 위치에서 대동강을 내려다보는 사진은 없지만, 북한주민들이 창전거리 아파트를 아래서 위를 향해 바라보며 개인의 욕망



출처: 로동신문(2012/05/31), 1면. 원본사진은 천연색임.

그림 5 창전거리 살림집을 방문한 김정인과 간부들

과 건물 높이를 연결하는 인식이 있었음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야! 정말 높기두 하구나. 얼마나 높은지 난 아까부터 저 아파트의 층수를 끝내다 세지 못했어. 자꾸만 헛갈리는걸 어찌니.》《텔레비존에서 볼 때도 너무 멋있었는데 이렇게 진짜 보니 더 희한하구나.》[...] 《난 앞으로 꼭 설계가가 될테야. 내가 사는 도시에 이런 멋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일떠세워 온 세상에 자랑하겠어.》(로동신문 2012/06/04)

위 기사에서는 지방에서 소년단 대표로 평양에 온 학생이 창전거리 건물들의 ‘층수를 끝내 다 세지 못’할 정도의 높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창전거리와 같은 고층 아파트들이 건설되길 바라는 욕망을 드러냈다.¹⁴ 이처럼 고층건물의 높이가 북한주민의 도시에 대한 인식, 욕망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면, 아래에서 위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호기심, 욕망도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창전거리 완공 당시에는 집권 일 년이 지나지 않은 20대 후반의 젊은 지도자가 현장에서 간

¹⁴ 려명거리 건설에서도 건물 높이에 대한 북한주민의 긍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 평양의 려명거리에 70층 아파트를 비롯한 초고층살림집들이 솟구쳐오르고 어디서나 세인을 경탄시키는 건설신화가 창조되는 만리마 시대에 섬이라고 단층건물만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은가”(로동신문 2018/01/20).

출처: 로동신문(2015/02/15), 1면. 원본사진은 천연색임.

그림 6 전용기에서 미래과학자거리 건설현장을 바라보는 김정은



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상하고 성실한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배경으로 창전거리 고층 아파트 공간을 전유하였고, 실제 거주민들이 대동강을 내려다보는 모습은 아직 볼 수 없었다.

2015년 11월 4일에 준공된 미래과학자거리는 김정은 집권 초기에 강조했던 과학중시, 인재중시 사상에 따라서 김책공업종합대학 소속 교원들과 그 밖에 평양에 있는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을 위한 주거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2,000여 미터의 대동강 호안을 따라 약 12만 평 부지면적에 23동 2,500여 세대가 들어오고, 세탁소, 영화관, 식당을 포함한 150여 개의 편의시설이 배치되었다. 미래과학자거리는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의 한복판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 첫 사업이라는 의의에 걸맞게 “주체건축의 본보기거리, 로동당시대의 선경거리”(황후남, 2016: 5)로 선전되었다. 그러한 정치적 상징성을 염두에 두어서였는지 미래과학자거리의 건설기간에 김정은은 전용기에서 현장을 바라보는 사진들을 『로동신문』에 게재하기도 했다(그림 6).¹⁵ 전용기 탑승 사진을 통해 주민들에게 평양 그리고 북한을 통치하는 ‘지도자 김정은’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기대했을 것이다. 즉, 앞의 창전거리 방문 사진(그림 5)과 비교하여 더욱 높은 위치에

¹⁵ 이러한 전용기를 이용한 현지도 방식은 현재까지 다른 건설사업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다.

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김정은의 시선은 집권 초기보다 국가 장악력이 상징적으로 더 커진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이 인민을 위한 최고지도자의 의중이 깃들었다는 점은 이곳에 입주하게 된 북한주민들의 발언이 『로동신문』을 통해 보도되면서 재확인된다.

궁궐같은 살림집에서 돈 한푼 내지 않고 살게 될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을 환한 미소 속에 그려보시며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흉내낼 수도 지어낼 수도 없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로동신문 2015/11/08a)

몇 년 전 과학기술교류사업으로 어느 한 나라에 갔던 그는 우연히 살림집가격을 소개하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집값이 너무도 엄청나 얼마나 희한한 고급주택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수수한 일반주택이었다. 그런데 그에 대비할 수도 없는 궁궐같은 5칸짜리 고급살림집을 돈 한푼 내지 않고 받아안았으니 로교수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으랴(로동신문 2015/11/09c).

위 기사들은 앞서 논했던 북한 사회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 ‘남부럽지 않은’의 연장선에 있다. 즉, 외부(주로 자본주의 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체제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¹⁶ 그런데 위 기사에서 해외출장을 갈 수 있는 교수 신분인 그들은 미래과학자거리 입주를 선택받지 못한 다수의 ‘평범한’ 북한주민들에게는 부러움을 샀을 가능성이 있다.

미래과학자거리 고층 아파트에 입주한 한 가족이 대동강을 바라보는 모습을

¹⁶ II장에서는 체제경쟁의 맥락에서 지금까지의 국내 남북한 비교연구가 북한에 대한 남한의 체제적 비교우위를 드러내는 의도가 강했음을 확인했다. 마찬가지로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에 대해 북한 당국은 자신의 체제가 자본주의에 비해 우월하다고 선전한다는 점에서 남북한 분단체제하에서 체제경쟁의 논리와 선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본문에 직접 인용한 기사 외에도 유사한 기사 들로는 미래과학자거리 준공을 기념하여 작성된 “여기선 누가 사는가”라는 제목의 시에서 “자본주의가 영원히 지어낼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제일 좋은 사회주의. 이 거리에서 우리가 산다. 아, 세상에 부럽없는 인민이 산다”(로동신문 2015/11/22)는 문구가 확인되고, 미래과학자거리 준공에 대한 해외언론 보도기사를 언급한 『로동신문』 기사는 “만일 자본주의나라 사람들이 조선인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게 된다면 그 나라 정부는 다음날로 전복될 것이다”(로동신문 2015/11/27)라고 작성되었다.

출처: 로동신문(2015/11/09a),
5면. 원본사진은 천연색
임.

그림 7 미래과학자거리 고층 아
파트에 입주한 가족이 대동강을 바
라보는 모습



촬영한 그림 7은 여러 변화가 담겨 있다. 핵심적으로는 아래서 위를 바라보았던 북한주민들의 시선이 최고지도자처럼 고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그림 5)을 취했다는 점이다. 창전거리 고층 아파트에서는 오직 김정은만이 내려다볼 위치에 있었고, 그 자리에 입주자들은 없었던 것과는 대조된다. 앞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 창전거리 고층 아파트를 아래서 위로 바라보면서 그 높이에 감탄하며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냈듯이, 다수의 북한주민들은 경험하지 못한 고층 아파트에 최고지도자가 아닌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 주민이 아래를 내려다보는 광경이 담긴 사진을 본 일반주민들은 그곳에 자신도 거주하고 싶은 욕망을 형성할 수 있다. 나아가 사진 속 가족이 미소를 지으면서 시선이 향한 곳은 대동강이다. 비록 『로동신문』 기사에서는 이들의 시선이 향한 지점까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가족은 평양의 대표 자연경관인 대동강에 인접한 덕분에 자신의 사적 거주공간에서 대동강을 일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도 그림 7처럼 그들의 미소를 밝게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래 기사들은 미래과학자거리 거주민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화들이 담겨 있다.

평양의 살림집들 가운데서 제일 높은 곳인 53층 살림집우에서 창문을 열고 상쾌한 아침공기를 들이키며 아침안개 드리운 수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부감하는것은 여기에서 살고있는 집주인들만이 느낄수 있는 류다른 기쁨이다(로동신문 2015/11/08c, 밑줄은 인용자주).



출처: 로동신문(2015/11/08b), 5면. 원본사진은 천연색임.

그림 8 석양에 비친 미래과학자거리의 풍경

무더운 삼복철에도 시원한 바람이 그칠줄 모른다는 150여m의 정점에 오르니 층성의 다리에서 양각다리까지 대동강호안을 따라 즐기게 들어앉은 초고층살림집들과 묶음식살림집들이며 영화관과 상점들을 비롯한 각종 봉사망들, 휴식과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휴식터들과 체육공원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거대한 예술작품처럼 안겨온다(로동신문 2015/11/09a, 밑줄은 인용자주).

위 기사들에 따르면, 일반 북한주민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제일 높은 곳인 53층 살림집’에서 ‘상쾌한 아침공기를 들이’마시고, 평양 시내를 바라보는 ‘류다른 기쁨’을 누리거나 한여름에도 150여 미터 높이에서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대동강을 포함한 자연환경과 주변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미래과학자거리 거주민들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¹⁷ 이처럼 ‘53층’, ‘150여 미터’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과 함께 아래서 위를 바라보는 시선(그림 8)도 미래과학자거리의 대동강류를 구성한다.

그림 8은 마치 서울 한강의 석양을 바라보는 것으로 착각할 만큼 유사한 미

¹⁷ 미래과학자거리 준공을 기념하여 작성된 “하늘가에 솟은 집”(로동신문 2015/11/22)이란 제목의 시에서는 “멋쟁이거리를 보란듯이 거느리고, 하늘가에 닿은 초고층아파트. 따뜻한 해살을 제일 먼저 받으며, 구름우에 솟은 집”이란 표현이 있다. 이 시에서도 초고층 아파트 주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높이에 대한 긍정적 표현(“따뜻한 해살을 제일 먼저 받으며”)을 확인할 수 있다.

래과학자거리의 풍경이다. 이 사진을 게재한 『로동신문』은 아래와 같이 사진을 설명했다.

붉은 노을빛으로 곱게 물든 대동강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크나큰 기쁨이 가득 어려있다. 한 폭의 그림마냥 하늘을 치솟으며 솟아오른 미래과학자거리의 건축물들(로동신문 2015/11/08b, 밑줄은 인용자주)

우리는 석양빛이 흘러드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솟아오른 미래과학자거리의 웅장한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안겨들었다. 우리당의 웅대한 과학기술증시사상을 온 세상에 과시하며 솟아오른 저 행복의 보금자리들, 밝은 불빛이 쏟아져나오는 저 창가마다에서 과학의 힘으로 세계를 압도해갈 불같은 맹세가 흘러나오리니 행복의 거리, 미래과학자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는 더욱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이 보이는데 싶었다(로동신문 2015/11/09b, 밑줄은 인용자주).

첫 번째 기사는 그림 7과 함께 게재된 신문기사로 한국사회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비유인 ‘한 폭의 그림’으로 미래과학자거리를 표현했고, 두 번째 기사는 다음 날에 게재된 기사이지만 마치 그림 7을 본 후에 작성한 기사인 것처럼 ‘한 폭의 그림’이라는 비유를 재차 사용했다. 비록 두 번째 기사의 후반 문장들은 체제선전 일색이지만, 전반적으로 독자의 감성을 건드리는 서술과 아름다운 미래과학자거리의 풍경을 접한 독자들은 이 한 폭의 그림에 시선이 끌렸을 것이다. 이처럼 아래서 위를 바라보는 시선을 체험한 북한주민들은 그림 7과 같이 위에서 경험하지 못한 상쾌한 공기와 시원한 바람을 누리면서 대동강 일대를 내려다보고 싶은 욕망이 자라날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비교도시론의 시선에서 한강뷰와 대동강뷰의 사회적 형성과정을 추적했다. 한강뷰에 내포된 특권화된 시선은 1970년대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

체가 주도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도시화가 가속화된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오늘날과 같은 한강류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2010년대 중후반 한강 일대 재개발 주기와 맞물리면서 한강류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수변주거단지에 거주하며 한강을 포함한 주변 자연과 경관을 전유하려는 욕망이 담긴 한강류의 탄생은 전형적인 자본주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시선의 상품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남북한의 지리적, 이념적 경계를 넘어서 사회주의 도시 평양에서도 대동강류가 존재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져보았다. 관영매체인 『로동신문』에 대한 징후적 독해를 통해 북한에서 진행되는 도시건설이 지도자의 정치적 업적으로만 활용된 것이 아니라 지난 십여 년 동안 이를 목격하고 있는 북한주민들도 도시공간을 매개로 자신의 욕망적 시선이 맹아적 수준에서나마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즉 ‘대동강류’라는 신조어는 아직 북한사회에서 발화(發話)하진 않았더라도 대동강류를 누릴 수 있는 특정 주민들의 과시적 욕망은 은근하게 발화(發火)하고 있으며, 대동강류에 접근하지 못한 북한주민들에게 대동강류를 누리고 싶은 욕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특권화된 시선에 대한 남북한 간 유사성은 사회의 계층적, 계급적, 지역적 긴장 관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장차 남북한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근거인 민족과 비교한다면, 도리어 통일에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역발상을 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제기되어 북한의 도시개발에 한국 측이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한강류를 매개로 욕망이 분출했던 것처럼 대동강류를 매개로 욕망을 드러내는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의 양적 공급에 치중하기보다 그들의 필요, 취향을 반영한 질적 공급을 중시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다.

분단 반세기가 지난 현시점에서 한강류와 대동강류의 유사성을 주목한 본 연구는 더 이상 민족만을 통일의 근거로 강조하기에는 두 사회가 변화하고 복잡해졌음을 환기한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통일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고, 최근 북한 당국이 민족, 통일 개념을 부정하는 상황은 민족으로만 통일의 당위를 찾으려는 것은 미래 세대가 더 이상 공감하지 못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강류-대동강류와 같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현시대에 한국사회와

북한사회의 미시적 유사성을 발굴하는 작업이 더욱 활발해져야 어떤 부분이 서로 유사하고 다른지를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남북한의 유사성은 민족과 같은 상수보다는 변수에 가깝다. 앞으로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새로운 통일의 공감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의 한계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한강뷰와 대동강뷰를 사회과학연구의 대상으로 선구적으로 살핀 점은 본 연구의 의의이지만, 각 개념은 각 국가의 연구환경에 맞춰 보다 정밀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한강뷰의 경우에는 본 논문이 활용한 신문분석 이외에도 다양한 매체, 인터뷰, 정책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깊이 있는 후속 연구가 가능하다. 한강뷰에 대한 후속연구가 축적되면 대동강뷰에 대한 분석도 한층 깊어질 것이다. 또한 각주 13에서 언급했듯이 대동강뷰의 형성과정에 관련된 북한의 구체적인 행위자들을 규명하는 작업이 남겨졌다. 행위자들 간의 이해관계와 기대효과는 동일하지 않다. 각 행위자 분석을 통해 어떠한 기대, 목표를 갖고서 실천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대동강뷰의 사회적 구성과정을 보다 다면적, 역동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4년 12월 31일 | 심사일: 2025년 3월 21일 | 게재확정일: 2025년 4월 2일

참고문헌

- 고유환. 2015. “북한연구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조영주 편저.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방법론·연구방법』. 한울, 27-53.
- 김미영·김지희. 2018.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통해 본 과시적 자기표현 공간으로서 서울 고급호텔.” 『서울도시연구』 19(1), 95-113.
- 김민아·이태호·반영운. 2012.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서울과 평양의 도시공간구조 변화 특성 분석.” 『도시행정학보』 25(1), 161-179.
- 김성재·리문철. 2011. “살림집실내에서 사람들의 심리적특성을 고려한 색채해결.” 『조선건축』 75(16).
- 김영재·최정환·한동수·동정근. 2001. “해방이후, 서울과 평양의 도심공간구조와 그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공간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

- 집: 계획계』 17(10), 31-42.
- 김정관·정성일. 2018. “거리형성에서 조형화, 예술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 『조선건축』 111(12).
- 김정일. 1997. 『김정일 선집 제1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주철. 2006. “날로 더욱 반동화되어가고 있는 현대 부르주아 철학의 최근동향.” 『철학연구』 3, 48.
- 김학노. 2023. 『정치: 아와 비아의 헤게모니 투쟁』. 박영사.
- 김혁. 2016. “거리의 웅장성과 립체성.” 『조선건축』 제95호, 36.
- 노재현·김옥경. 2007. “신분 아파트광고에 나타난 조망지향성과 그린마케팅의 속성.” 『한국조경학회지』 34(6), 87-100.
- 노현중. 2022. “비교사회주의적 접근을 활용한 북한연구: 유용성, 개념활용 그리고 구조화된 비교.” 『북한연구학회보』 26(1), 7-46.
- _____. 2024. “한강과 대동강의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연구.”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37, 37-73.
- 류승남·김혁. 2016. “거리건축형성과 다양성.” 『조선건축』 제95호, 33.
- 리창룡. 2016. “실내공간에서 색환경심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조선건축』 95, 36.
- 문정희. 1985. “한강풍경.” 『동아일보』 8월 5일자.
- 박순성·홍민 엮음. 2010.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한울아카데미.
- 박정남. 2011. “실내진렬품에 대한 시각적 특성.” 『조선건축』 74, 47.
- _____. 2019. “풍경에 대한 시각특성.” 『조선건축』 112, 46.
- 백낙청. 2021.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비.
- 백일순. 2022. “평화의 지역적 전환: 국내 평화도시 논의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7(1), 19-36.
- 백지연·김백영. 2010. “강남의 꿈은 붕괴하는가: 황석영 장편소설 『강남몽』.” 『창작과 비평』 149, 432-440.
- 오규식·이왕기. 1997. “아파트 가격에 내재한 경관조망 가치의 측정.” 『국토계획』 32(3), 139-151.
- 오수련. 2016. “사명과 용도에 따르는 살림집내부의 색채와 그 심리적 작용.” 『조선건축』 98, 16.
- 이선미·배광현·이규범·이진희·곽민정. 2016. “고객후기 분석을 통한 국내 호텔 서비스 품질 핵심요인 연구.”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8-225.
- 이수현·변기동. 2022. “서울과 평양의 도시구조 및 위상중심핵 비교 분석 연구.” 『한국

- 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78, 187-198.
- 이정재. 1993. “사회의 경제구조와 경관: 서울과 평양의 도시경관 비교.” 『공간과 사회』 3, 225-254.
- 이중구. 2024.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북관계 전망.” 『통일정책연구』 33(1), 29-54.
- 이지순. 2024. “곤경의 연대기와 소설의 누빔점: 서청송의 단편소설 〈먼저 걸으라〉 (2023)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7(2), 44-79.
- 임수진. 2023. “김정은식 ‘사회주의문명’도시 공간의 생산: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3(1), 9-38.
- 정성장. 2007. “북한정치 연구와 남한중심주의.” 『정치정보연구』 제10권 1호, 89-106.
- 티비조선. 2021. 모란봉클럽 272회 1월 24일 방송.
- 정홍주. 1995. 『아파트 가격결정모형에 관한 실증 연구: 서울지역 한강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완규 엮음. 2004.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 신의주, 혜산』. 한울아카데미.
- 한동호·이용재·여영운. 2023. 『남북 체제비교와 성과 연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 홍순직. 2023. “김정은 시대의 도시·주택 건설 정책 특징: 평양 살림집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3(1), 39-72.
- 황석영. 2010. 『강남몽』. 창비
- 황재평. 2009. “우리의 도시와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킨 위대한 업적.” 『조선건축』 66, 4-5.
- 황진태. 2019. “북한도시연구방법론으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에 관한 시론: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70, 118-156.
- _____. 2020. “‘평양의 강남’은 어디인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6(3), 245-259.
- _____. 2022. “비교도시론이 북한도시연구에 주는 함의.”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5(1), 21-40.
- _____. 2023.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 전략: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통일연구원
- 황후남. 2016. “로동당시대의 선경거리로 훌륭히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 『조선건축』 94, 5.
- Ferenčuhová, Slavomíra and Michael Gentile. 2016. “Post-socialist Cities and Urban Theory.”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57(4-5), 483-496.

- McFarlane, Colin. 2010. "The Comparative City: Knowledge, Learning, Urbanism,"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4(4), 725-742.
- Meyer, Alfred. 1970. "Theories of Convergence." C.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313-341.
- Robinson, Jenifer. 2006. *Ordinary Cities: Between Modernity and Development*, London: Routledge.
- Tuvikene, Tauri. 2016. "Strategies for Comparative Urbanism: Post-socialism as a De-territorialized Concep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0(1), 132-146.
- X. 1947.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25, 566-582.

1차 자료

『경향신문』:

1970. 10. 2. "서울-새風俗圖(2) 한강[2]."
1978. 7. 10. "아파트 특혜의 현장 프리미엄 2천만원~3천만원."
1986. 6. 21. "압구정동 부촌 이미 지속 강세유지."
1986. 9. 6. "영화 속의 호화저택."
- 1991.4.2. "한국의 "베버리힐스"."
1992. 8. 20. "전망 좋은 「로열층」한강이 눈앞."

『동아일보』:

1969. 10. 6. "한국 최초의 한강맨션아파트."
1970. 9. 9. "한강 맨션 아파트 준공 700가구 수용 지역온수난방."
1976. 8. 19. "원효로 산호아파트."

『로동신문』:

2012. 5. 3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창전거리에 일떠선 아동백화점과 살림집들을 돌아보시었다."
2012. 6. 3. "당의 은정속에 솟아난 현대적인 새 거리."
2012. 6. 4. "커지는 꿈, 높아지는 리상: 훌륭히 일떠선 창전거리에서."
2015. 2. 1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2015. 11. 8a.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이 낳은 시대의 기념비에 깃든 위대한 령도."
2015. 11. 8b. "과학탐구의 결승주로."
2015. 11. 8c. "미래과학자거리의 상징건물-53층 초고층살림집."

2015. 11. 9a. “젊음으로 비약하는 내 조국의 하늘가에 울려퍼지는 사회주의만세소리: 새집들이 경사로 흥성이는 미래과학자거리를 찾아서.”
2015. 11. 9b. “따사로운 햇빛속에 꽃피난 새 가정의 행복: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 최강민동무의 가정을 찾아서.”
2015. 11. 9c. “새 집의 열쇠.”
2015. 11. 22. “래일에 사는 거리.”
2015. 11. 27. “평양에 펼쳐진 새로운 식의 특색있는 거리: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 미래과학자거리를 소개.”
2018. 1. 20. “불같은 열정과 헌신으로 조국의 불빛을 지켜가는 참된 애국자.”
2018. 6. 12.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싱가포르공화국의 여러 대상을 참관하시였다.”

『매일경제』:

1976. 12. 22. “반포동 일대에 아파트 신축 집중될듯.”
1977. 10. 1. “나의 투자수기 그 성공과 실패담 (8).”
1985. 7. 10. “아파트 베란다에 녹색공간.”
1986. 9. 15. “압구정동 아파트 매기 꿈틀.”
1987. 8. 17. “주택거래동향 동부이촌동.”
2009. 6. 16. “[아파트 이야기] 한강맨션아파트.”

『조선일보』:

1969. 10. 1. “窓門 열어드세요.”
1970. 12. 11. “幕前幕後 '70 ③-아파트.”
1972. 10. 26. “아파트에 산다 ⑤ 環境.”
1996. 9. 17. “한·강·특·별·시·민.”
1996. 11. 25. ““거실에서 바라본 한강의 전경입니다.”
1997. 4. 5. ““헌집줄게 새집다오.”

건설회사 한강뷰 광고(<https://www.youtube.com/watch?v=NPhPF5u49R8>)(검색일:

2023. 10. 1.)

공인중개사 유튜브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PeRTucgxBi4>)(검색일:

2023. 10. 1.)

나무위키 홈페이지의 원산갈마국제비행장 소개 글(<https://namu.wiki/w/%EC%9B%90%EC%82%B0%EA%B0%88%EB%A7%88%EA%B5%AD%EC%A0%9C%EB%B9>

%EC%82%B0%EA%B0%88%EB%A7%88%EA%B5%AD%EC%A0%9C%EB%B9

%84%ED%96%89%EC%9E%A5)(검색일: 2025. 3. 6.)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검색일: 2024. 11. 5.~25.)

빅카인즈 홈페이지(검색일: 2024. 11. 1.)

Arch Daily 홈페이지(<https://www.archdaily.com/371031/wonsan-international-airport-proposal-plt>)(검색일: 2025. 3. 6.)

Abstract

The Emergence of the Daedong River View and the Han River View: A Comparative Urbanism Interpretation of Waterfront Residential Complexes and the Formation of Desirous Gazes in Pyeongyang and Seoul

Jin-Tae Hwang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argues that emphasizing only the fact that North and South Korea are of the same ethnicity as the basis for unification has limitations in advancing inter-Korean relations. Instead, it explores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new consensus on unification by discovering new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Koreas. More specifically, it focuses on the natural geographic similarity in which large rivers, the Daedong River in Pyeongyang and the Han River in Seoul, run through the respective capitals. In the mid-to-late 2010s, the term “Hangang view” began to spread widely as high-end high-rise apartments were built along the Han River. The Hangang view offers an exclusive accessibility to the economically privileged, as it allows residents to look down on Seoul’s iconic natural landmark from high-rise living spaces. The social diffusion of the term reflects the public’s desire to experience and possess the Hangang view. This raises the question: is the Han River view merely a product of capitalist urbanization, or could a similar phenomenon such as a “Daedong River view” exist in the socialist city of Pyeongyang? Following an analysis of the Han River view, this study hypothesizes the potential for the formation of a Daedong River view in North Korean society,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Mirae Scientists Street development along the

Daedong River under Kim Jong-un's leadership. From a comparative urban perspective, the study seeks to explore whether North Korean citizens share similar perceptions and desires to those found in South Korean society through the medium of urban space. This research goes beyond simply identifying similarit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societies; it holds policy significance by providing a proactive understanding of potential social conflicts and issues that could arise with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ultimately, in a unified Korea.

Keywords | Daedong River View, Han River View, Pyeongyang, Seoul, Comparative Urbanism, Symptomatic Reading

